

“카메라로 소통... 비주얼 세대를 잡아라”

스마트폰 카메라에 공을 들인 이유

사용자가 생산·소비하는 콘텐츠로 각종 갤럭시S9, 슬로우모션·AR 등 카메라 강화 LG V30, 카메라에 AI 접목해 활용도 높여



LG V30S ThinQ. 사진제공 LG전자

“비주얼 세대를 잡아라.”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소통하는 젊은 세대를 잡기 위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카메라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단순히 화소를 높이거나, 더 밝은 렌즈를 사용하는 등의 성능 경쟁에서 벗어나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플이 ‘아이폰X’를 통해 선보인 얼굴인식 이모티콘 ‘애니모지’나 구글의 이미지 인식 서비스 ‘구글렌즈’ 등이 대표적인 예다. 28일부터 국내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다.



25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8’ 삼성 갤럭시S9 언팩 참가자가 갤럭시S9을 체험하고 있다. 갤럭시S9은 초당 960개 프레임을 촬영하는 슈퍼 슬로우 모션, 자신의 이모티콘을 만들어주는 AR 이모지 등 영상세대에 맞춰 카메라를 특화해 눈길을 끌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모습을 드러낸 삼성전자의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9’과 ‘갤럭시S9플러스’도 카메라에 방점을 찍었다.

초당 960개 프레임을 촬영하는 ‘초고속 카메라(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순간까지 기록해준다. 기존 일반 촬영에 비해 32배 빠른 속도로, 0.2초의 움직임이 6초 정도로 보여준다. 피사체의 움직임을 인식해

자동으로 촬영할 수 있어 꽃잎에 앉았던 나비가 날아가는 순간까지 포착할 수 있다.

AR로도 카메라의 사용성을 높였다. 셀피 촬영으로 사용자와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AR 이모지’ 기능을 갖췄다. 눈, 코, 입, 뺨, 이마 등 100개 이상의 특징점을 인식해 다양한 표정을 담을 수 있고, 헤어 스타일이나 의상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든 ‘아이 이모지

스타커’는 문자 등 메시지를 통해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디즈니 등과 협력해 인기 캐릭터로도 AR 이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I 접목도 빼놓을 수 없다. 성능을 높인 ‘빅스비 비전’으로 텍스트(번역), 쇼핑, 음식, 와인, 장소 등 원하는 모드를 선택한 뒤 피사체에 카메라를 갖다 대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 여행 중 텍스트 모드를 선택하고 메뉴판이나 길 안내 표지판을 비추기만 하면 자동으로 언어를 인식해 번역결과를 보여주는 식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사장)은 “비주얼로 메시지와 감정을 공유하는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모든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LG전자의 ‘LG V30S ThinQ’는 AI 기능을 더해 카메라의 사용성을 높였다. 카메라로 사물을 비추면 인물이나 음식, 애완동물, 풍경 등 자동으로 최적의 촬영 모드를 추천한다.

또 사진을 찍으면 피사체의 정보, 관련 제품 쇼핑, QR 코드 분석까지 한 번에 알려준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촬영 환경의 어두운 정도를 분석해 기존보다 최대 2배까지 밝은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26일

코스피지수	2457.65	▲	+6.13
코스닥지수	874.43	▼	-0.35
일 낮케이 지수	2만2153.63	▲	+260.85
중 상하이 종합	3329.57	▲	+40.55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263	▼	-0.022
환율 (원·달러)	1074.3	▼	-5.6
국내금값 (원/그램)	4만6269.96	▲	+152.42

오늘의 얼굴

박성훈 신임 대표, 넷마블 전략 투자 담당



박성훈(45·사진) 전 카카오 최고전략책임자가 게임업체 넷마블 신임 대표로 내정됐다. 9월 말 이사회를 거쳐 공식 선임된다. 넷마블은 기존 권영식 단독 대표 체제에서

권영식·박성훈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권 대표는 기존 게임사업을, 박 대표 내정자는 전략과 투자를 전담할 예정이다. 사세 확대에 따른 경영진 보강 차원에서 박 대표 내정자를 영입해 글로벌 사업과 신사업 전략을 강화하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는 게 넷마블 측 설명이다. 박 대표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베인앤컴퍼니, 보스턴컨설팅그룹을 거쳐 2013년 CJ 미래전략실 부사장을 지냈고, 2016년부터 카카오에서 최고전략책임자와 로엔엔터테인먼트(3월에 카카오M으로 사명 변경 예정) 대표를 지냈다.

비즈 TALK TALK

- “신차 배정을 포함한 신규투자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26일 한국GM이 요청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얼굴을 들지 못할 것” (최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26일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SK케미칼이 SK디스커버리로 이름이 바뀐 것을 모르고 이전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에 고발한 것을 지적하며)
-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 (갑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6일 갑발 프랜차이즈 바르다건설생 가맹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데이터 경제

기업 인사담당자 선호, 최민정 선수 같은 노력형 인재

평창동계올림픽의 스타 중 인사 담당자들이 주목하는 스타일은 어떤 선수일까.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420명을 대상으로 ‘올림픽 스타 중 우리 회사에 입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묻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39.8%가 ‘노력하는 천재형’으로 스포츠계 최민정 선수를 선호했다. 이어 본보기가 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말년형’인 이상화, 압도적 기량을 뽐내는 ‘슈퍼맨형’ 윤성빈, 목표를 향해 한계를 뛰어넘는 ‘직진형’ 김민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꿈나무형’ 차준환,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흔들림 없는 ‘오독이형’ 임효준 순으로 응답했다.

순위	선수명	선호율 (%)
1	최민정	39.76%
2	이상화	22.62%
3	윤성빈	12.38%
4	김민서	11.43%
5	차준환	9.76%
6	임효준	4.05%

편집 이수진 기자



100,000,000병

피츠 슈퍼클리어, 누적 판매 1억병 돌파

롯데주류가 지난해 6월에 출시한 ‘피츠 슈퍼클리어(Fitz Super Clear·사진)’가 출시 8개월 만에 누적 판매 1억병(330ml 기준)을 돌파했다.

이는 20~69세까지의 우리나라 성인 인구를 약 3000만 명 정도로 추산했을 때 1인당 3병씩 마신 셈이다. 1억병(235mm)을 일별로 세우면 약 2만3000k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롯데월드타워(555m)를 4만 개 세울 수 있고, 롯데아쿠아리움(5천2000톤)의 수조를 6번 이상 채울 수 있는 양이다.

롯데주류측은 자체 개발한 고발효 효모 ‘슈퍼이스트’를 사용해 발효도를 90%까지 끌어올려 맥주의 잡미를 없애고 최적의 깔끔한 맛을 구현한 것이 시장 안착의 비결이라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11월부터 ‘피츠 슈퍼클리어’를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호주, 캐나다, 대만, 캄보디아로 수출국을 늘려가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저기 봄이 오네”... 홈쇼핑 ‘패션전쟁’

히트상품 절반이 패션 제품, 매출 효과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등 새 PB 경쟁

봄 시즌을 앞두고 TV홈쇼핑 업계의 패션전쟁이 시작됐다.

홈쇼핑 업체가 자체 개발한 새로운 PB(자체브랜드) 론칭 및 기존 브랜드 라인업 강화에 치중하고 있다. 지난해 TV홈쇼핑의 히트 상품 절반이 패션 제품일 정도로 홈쇼핑 매출에서 패션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 부문으로 자리잡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새 패션 PB로 아이젤과 LBL SPORT를 연이어 내놓았다. 아이젤은 3040 고객을 타깃으로 한 캐주얼 브랜드로 아트 프린트 롱 트렌치 점퍼, 컬러아트 니트, 아트 크래프트 셔츠 재킷 등으로 구성했다. 스포츠웨어 LBL SPORT는 모델 이소라를 모델로 ‘일상에서 즐기는 에너지, 스타일리스 라이프웨어’를 콘셉트로 했다. 판매에 의한 세균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정지영이 모델인 현대홈쇼핑 새 패션 PB 밀라노스토리. 봄 시즌을 맞은 TV홈쇼핑 업계의 패션전쟁이 한창이다. 사진제공 현대홈쇼핑

경제현장.jpg

“2008년 부담없는 ‘그때 그 가격’으로 드립니다”



2008년 2월27일 론칭한 11번가가 27~28일 오픈 10주년을 기념해 ‘2008년 그때 그 가격’ 판촉 행사를 연다. 인기 상품 25종을 10년전 가격으로 판매하며 상품은 1통에 3000원, 과자는 한 봉지에 500원, 브랜드 조깅화는 1만원대에 선보인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11번가

SKT, 1Gbps LTE 상용화 서비스 시작

SK텔레콤이 ‘갤럭시S9’으로 최대 속도 1Gbps에 달하는 LTE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다. 1Gbps는 유선 기가인터넷 수준으로 2011년 상용화한 LTE의 75Mbps와 비교해 13.3배 빠른 속도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1GB 용량의 영화 한편을 8초 만에 내려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갤럭시S9 출시와 함께 서울과 인천,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시 트래픽 밀집 지역에서 1Gbps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Gbps 및 5밴드CA(주파수복합기술) 등을 포함한 4.5G망을 올해 말 85개 시·82개 군까지 넓힐 계획이다.

4:33 ‘고스트버스터즈’ AR 게임 선행

네시삼십삼분은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와 제휴를 맺고 ‘고스트버스터즈’의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AR) 모바일게임 ‘고스트버스터즈 월드’를 개발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구글의 솔루션인 ‘AR 코어’를 사용해 손자회사인 넥스트에이지가 개발 중이다. 이 게임은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서 개막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구글 전시장에서 첫 선을 보였다. 연내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이미 스티븐슨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컨슈머 상품 총괄 부사장은 “고스트버스터즈는 AR 기술을 접목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브랜드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토요타 코리아, ‘프리우스 C’ 사전계약 실시

토요타 코리아가 26일부터 소형 하이브리드 모델 ‘프리우스 C’의 사전 계약에 돌입했다. 2011년 출시한 프리우스 C는 지난해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152만대가 팔린 베스트셀링 모델이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서 프리우스에 이어 판매량 2위를 기록하고 있다. 1.5리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장착되며, 한국 출시 모델의 구체적인 사양과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토요타 코리아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이벤트가 진행중이다. 헨리가 출연하는 홍보 영상을 보고 프리우스 C의 첫인상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원성열 기자